

광양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온 힘'

참여와 존중·안전과 보호·교육환경 등 6개 영역 표준조사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건강·복지·보육 통합서비스

광양시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 광양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는 지역사회의 아동(초, 중, 고등학생)과 보호자(미취학 아동 포함),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표준 설문조사지를 활용해 조사·분석하는 설문조사이다.

시는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아동친화도 6개 영역에 대해 조사해 지역 내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

역사회 공동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공사, 상공인단체 및 광양상공회의소(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체와 광양시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19년 5월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2020년~2021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이 외에도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는 등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 아동 가정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



광양시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존중 캠페인 모습. <광양시 제공>

기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19년 9월 학대피해 아동쉼터인 '광

양마음나누리 쉼터'를 개소해 아동들을 일시 격리해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상담에서부터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시 협력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비 4억9596만원을 투입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대상 신규 아동을 찾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2월 중 진행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등 상시 발굴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2024년에도 광양시 아동들의 내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공평하고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전년보다 8배 늘어난 23만명

국제 크루즈·마이스 유치 등 성과 전체 관광객 2759만명...1.6% 증가

국제 크루즈와 해외 전시행사(MICE)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여수시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8배 늘어난 23만명을 기록했다.

여수시는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누적 관광객이 2759만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여수 관광 빅데이터'는 여수시가 해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지인 관광객을 분석한 자료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여수시는 7년 만에 중국 크루즈(유람선) 선사 입학 등 총 5차례 국제 크루즈를 유치했다. 또 해외 MICE 유치에도 열을 올렸다.

지난해 관광객 자료에 따르면 나이별로는 40~50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여수를 찾았고, 다음으로 20~30대 순이었다.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한 달은 7~8월이었다.

연령대별 선호 관광지를 보면 20~30대 관광객은 종포해양공원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여수 밤바다'를, 50~60대 관광객은 오동도, 향일암, 남도



지난해 여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8배 늘어난 23만명을 기록했다. 여수항에 들어선 국제 크루즈 실버위스퍼호. <여수시 제공>

·조발도 등을 주로 찾았다.

지난해 숙박객 수는 전년보다 6.9% 증가한 62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과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사업 등을 펼쳤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여수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맞춤형 밀착 판촉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공인중개사와 위기 가구 발굴한다

이웃 돌봄 업무협약

순천시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기 가구 발굴에 앞장선다.

순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회장 김태희)와 최근 이웃 돌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찾고 돌보는 데 협력한다.

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 소속 520명 공인중개사 회원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상시로 발굴해

행복복지센터에 의뢰하고 연계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을 하게 된다.

우편물을 내버려 두거나 월세·가스요금·관리비 등이 밀리는 주거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찾아 신고하기도 한다.

1인 가구와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고립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는 쌀(10kg) 60포를 기탁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이달 2일까지 보성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마친 국군체육부대 역도팀. <보성군 제공>

보성군 동계 전지훈련 역도·축구 등 14팀 유치

보성군이 올해 들어 동계 전지훈련 14개 팀을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에는 아산시청 역도단, 배재대학교 축구팀, 문경상여자 축구팀이 보성을 찾는다.

지난달에는 역도단 5개 팀, 축구단 5개 팀, 야구단 1개 팀이 훈련했다.

보성군의 전지훈련 유치는 별교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사업을 통해 군형발전특별회계 4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축구장 3개 면, 풋살장 4개 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그동안 회천생태공원야구장 안에는 야간조명탑과 전망관을 설치하고, 별교 전지훈련

센터에는 근력 강화 훈련장을 설치했다.

기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해마다 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전지훈련 방문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이끌기 위해 회천생태공원야구장 난방 시설 등유 지원, 보성군 태백산맥 문화관 관람료 감면, 울포해수욕장센터 사용료 감면 등을 펼치고 있다. 전지훈련 유치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관광객 유치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성군은 내다 보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해 4개 종목 32개 팀, 연인원 7900여 명을 유치해 전남도가 평가하는 '2022~2023년 전지훈련 우수 시군 평가'에서 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다. /보성=김은택 기자 kyb@

광양시 구봉산 명소화...스페인 작가 조형물 랜드마크 설치

작가 5명 프레젠테이션 경쟁 마누엘 몬테세린 등 선정

광양시와 포스코는 구봉산 명소화 사업으로 스페인 출신 작가의 조형물을 랜드마크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봉산 명소화 사업은 구봉산 정상에 빛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지역의 랜드마크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생산한 제품과 기술을 이용한 조형물을 건설해 광양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시와 포스코는 구봉산 명소화 조형물 디자인을 위해 세계적인 작가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5명의 저명한 작가가 9개 작품을 경쟁 프레젠테이션한 결과, 스페인 출신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와 아이엔아키텍츠사 컨소시엄을 광양 구봉산 명소화 조형물 설계사로 선정했다.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는 스페인 출신으로 자연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가 구봉산 정상에서 작품 구상을 하고 있다.

과 생물의 법칙을 해석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실험적이면서 아름다운 구조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대만 가오슝 뮤지엄터가 있고 유럽디자인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작가는 조형물 디자인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구봉산과 광양역사문화관, 장도 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그는 광양의 역사와 문화, 전통공예를 이해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박종근 장도장과 매화마을 흥상리 명인 등을 만나 시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광양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작품을 구상했다.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디자인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 10월까지 설계 후 내년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조형물은 봉수대의 상징성, 광양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반영한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빈집 정비 나선 고흥군, 4월까지 실태조사

소유자 동의 얻어 매각·임대 등 활용

고흥군이 오는 4월 말까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직접 찾아 이뤄진다.

조사원들은 빈집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서

조사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빈집에 대한 자료 구축을 위해 빈집 소유자, 건축 연도, 면적, 빈집 활용(매각·임대) 계획과 빈집에 대한 보유 이유(유산, 과도한 절거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 결과 등급(1등급)이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임대 등 활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예비 귀농·귀촌인들과 빈집 정보를 공유해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꾀한다.

3등급으로 분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에 반영한다.

올해 빈집 절거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33% 인상한 1동당 200만원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방치된 주택은 주변 환경·안전 위험 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3등급 등 등급이 낮은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 꽃밭과 같은 주민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세일 글

“시민 더 안전한 생활터전 만들기에 최선”

국승인 순천경찰서장



“순천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생활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5일 79대 순천경찰서장에 취임한 국승인(사진) 총경은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국승인 신임 서장은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있는 현충정원에서 참배하고 순천경찰서 협력단체장을 환담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국 서장은 “산과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진 생태 수도, 그리고 낭만이 있는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

도록 생활 터전을 조성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순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양 출신인 국 서장은 담양공고,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호남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국서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사과장, 전남경찰청 담양서장, 광주청 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